

겨자씨.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0
SPRING
VOL.40

08
곽승현 목사 & 이미경 사모
'십'과 '위안'이 있는
따뜻하고 결고운 동행

18
투데이 칼럼
'위라벨' 시대는 저물고,
'위라인' 시대가 온다!
이재형

20
포커스
신천지 바로 알기
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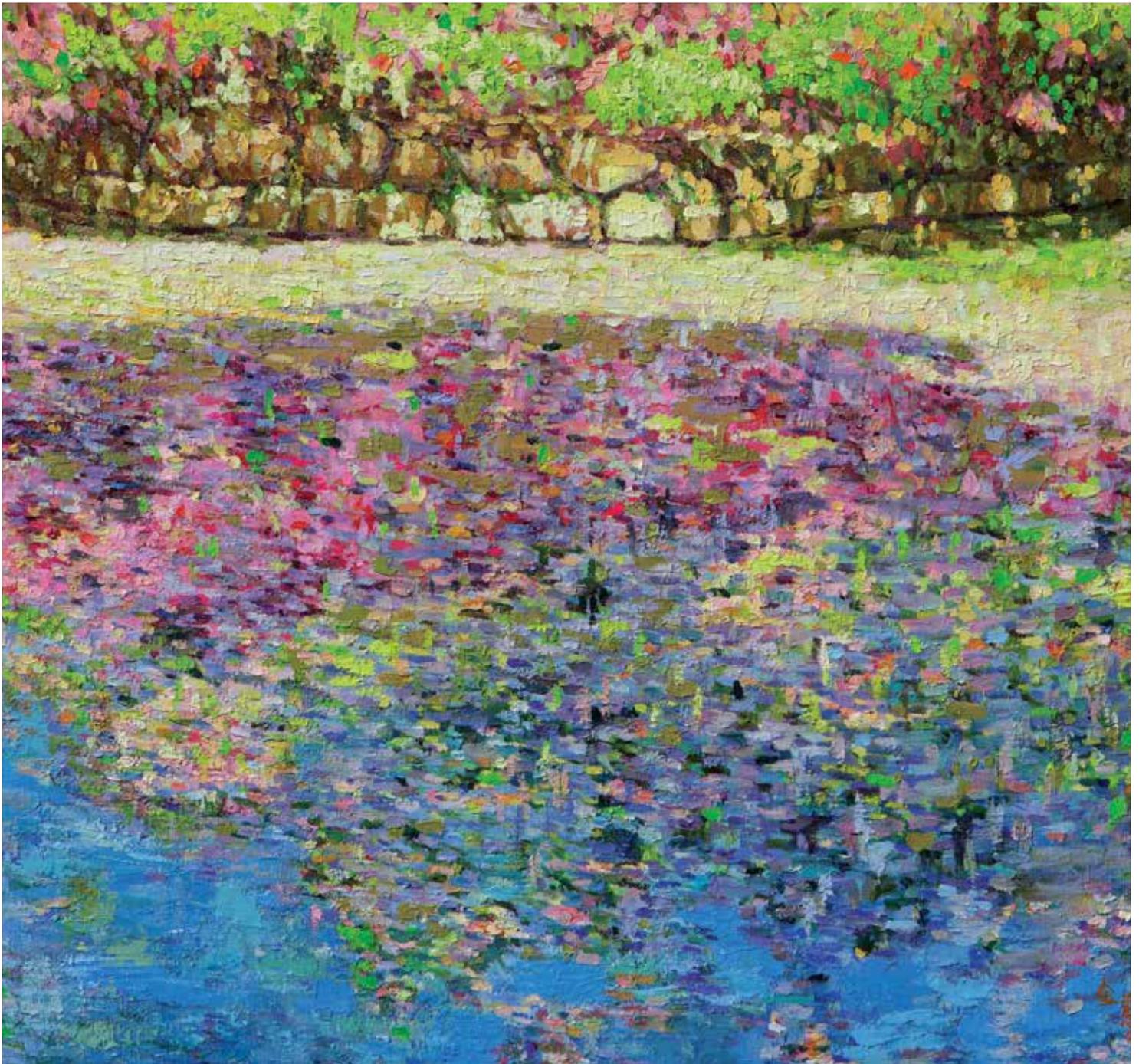
24
ON LOVE
성경 유물 90% 소장
세계기독교박물관 4월 개관
김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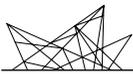
31
2020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
손양원
최경진

38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
1·10·10 위십패밀리
박은혜, 조인숙, 박창원

02
PROLOGUE
5월에 꿈꾸는 사랑
이재

06
사뱃가에 심은 나무
봄날에 심은 나무
성춘복





이채

- 노천명문학상, 조지훈문학상 수상
- 한국예총회장상 대상
- 시집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중년의 고백』 등

5월에 꿈꾸는 사랑

| 이채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다 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사진 · 박해준





겨자씨.

C.O.N.T.E.N.T.S

- 02 PROLOGUE
5월에 꿈꾸는 사랑
- 04 믿음소망사랑
부활
- 05 아침 훑가 |
삶의 자리를 광야 삼아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사순절
-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성춘복
봄날에 심은 나무
- 07 2020 SPRING Special Theme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 08 테마 인터뷰 | 광승현 목사 & 이미경 사모
'쉼'과 '위안'이 있는 따뜻하고 곱고운 동행
- 14 선교지 밀알 | 러시아 강성광 선교사
소수민족이라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 16 희망나눔 | 흥희란 마마클럽 경기 북부 대표 팀장
500여 개 교회의 중보기도연합 통해
통일 한국 준비
- 18 투데이 칼럼 | 이재형
'위라벨' 시대는 저물고, '위라인' 시대가 온다!
- 20 포커스 | 탁지원
신천지 바로 알기
- 24 ON LOVE | 성경 유물 90% 소장 세계기독교박물관
3개월 시험 운영 마치고 4월 개관
- 26 4월의 향기 | 광성축구선교단
복음 실은 축구공 필리핀으로 슛!
- 28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 김포중앙교회
한국 교회의 시원(始原)을 같이한
유서 깊은 교회
- 30 성경 속 인물 초대
사가라와 엘리사벳
- 31 2020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②
손양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 37 김민수 목사의 들꽃편지 봄
수선화 '꽃이 피니 봄 오고'
- 38 1·10·10 워십패밀리
박은해, 조인숙, 박창원
- 41 초등부 온라인 예배
예수님, 제 찬양 들리시나요?
- 42 함께 읽고 싶은 글 | 광성실업인선교회
1인 기업부터 법인까지,
모두 오세요
- 44 찬송가 산책 |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45 청년광장
- 46 핫이슈 | 뉴미디어 PD 이재은
내가 만난 하나님
- 50 WE
우리 함께, 그의 나라에서
- 52 내 삶의 멘토
멘토(MENTOR)
- 53 크로스로드선교회
- 54 표지 초대석
여운은 메이리로
- 55 꽃차
거울을 건너온, 노란 나르시스
수선화꽃차
- 56 명수필 산책
봄! 봄! 봄!
- 58 강혜미 기자의 고전 영화 TOP4
로맨스 영화가 담고 있는 반전
티파니에서 아침을
- 60 여행, 스토리를 담다 | 서촌
서촌의 예술가들, 그 흔적을 따라 서촌을 걷다
삶을 돌아보는 사색의 공간
- 62 BOOK AND BOOK
쉬지 않는 기도
예수의 기도
들꽃 위에 깃든 소망
- 63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 64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삶의 자리를 광야 삼아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사순절

사순절 40일 특별 1·10·10 가정예배

사순절인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일 저녁 9시 광승현 위임목사와 함께 드린 '사순절 40일 특별 1·10·10 가정예배'. 40일 간 온라인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들의 가정에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예배는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 '1·10·10 워십패밀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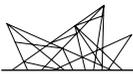
사순절 전교인 40일 광야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또는 하루 금식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한 '사순절 전교인 40일 광야기도'.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오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19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삶의 절대 주권자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기도의 파수꾼 24시간 비상 릴레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1시간 단위로 기도의 불을 이어 가는 24시간 비상 릴레이 기도 운동. 전 교역자 릴레이 금식기도를 비롯해 장로, 중보기도 위원회 및 기도의 파수꾼 530명이 각자의 골방에서 24시간 금식하며 기도의 등불을 밝혔다.





봄날에 심은 나무

글 · 성춘복(시인, 前 한국문인협회장)



사진 · 박해준

그 봄날, 나는 흥천의 남의 땅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왕이면 하고 가슴 한가운데 '입춘방(立春傍)'이라는 이름까지 내 글씨로 써 붙였다. 그 뜻은 '봄맞이의 표시'라고 할까. 내 나이쯤 되니 '봄'이란 관용어가 따라붙게 된 모양이다. 이왕이면 흙센 키도 잘 자라고 잎도 무성하여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에 한결같이 제대로 된 모습을 지닌 나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곁들여진 소망이었다.

생각해 보라, 찬바람이 이는 늦은 가을의 한때에 얼른 갈아입은 낙엽수의 옷매무새를! 마을 어귀를 지키던 느티나무의 날렵한 패션 감각이 아무래도 스스로 나를 매료시켰던 것 같다.

처음에는 이 나무가 주위의 여러 나무와는 아주 다르게 단박에 키가 우뚝 솟고 살도 제대로 붙어 단연 돋보이게 되리란 아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림 반 푼어치도 없이 내 소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살이 나고 말았다. 아월 대로 아원 나무의 물골이라니, 내 어리석음과 더불어 나를 닮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양새였다.

내가 써 붙인 그 명패를 간직한 채 그다음 해 봄엔 아주 어엿한, 그리고 그다음 해는 더욱 봄과 여름의 근사한 몸체를 거느릴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얼마나 속으로 빌었는지 모른다.

나중에 다른 여타의 나무와는 달리 높이를 세우고 술한 녹색의 그림자도 주위에 드리우며 아주 많이 나무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 혼자의 똥똥지같은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

물론 애시당초 이 낙엽수가 한 해 동안 자라나 유난히 훌륭하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 시작은 여느 나무와 다를 바 없이 그저 작은 종묘나 씨앗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아주 잘 고른 좋은 토양에다 씨앗이나 종묘를 묻으면 뿌리가 자리 잡아 움을 틔우고 크게 눈을 뜨면 여름의 무성한 잎까지 거느리게 되는 것을.

그리고 여름을 넘기면 노랗게 잎을 물들여 자신이 태어난 토양으로 과감하게 되돌리기를 할 것임을 짐작했다. 애초의 씨앗이 흙을 믿고 자신을 묻게 되면 다부진 봄기운에 힘을 불리고 물기도 얻어 자신을 철저히 삭히는 작업부터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듯 종자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썩고 삭히고 짓이겨져기 마련 아닌가. 드디어 봄날의 훈기로부터 잠을 깨고 보면 세포 분열을 하여 움이 되고 싹이 된다. 짐승도 사람도 든든한 뿌리와 함께 고난의 드난살이로 추위와 햇살, 바람과 비에 흔들리고 다져져서 제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때로는 해충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여름이면 질푸른 색깔의 그늘을 만들고 또 알미는 꽃과 향기로 나비와 벌들을 부추겨 종자 생산의 결실까지 하게 된다.

그해 나는 몸살을 하는 느티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흙으로 뿌리를 돌우어 주고, 막걸리를 사다가 퍼 먹이고, 물을 한도 없이 쏟아 붓고, 그 앞에서 내 키를 무작정 낮추고... 이런저런 일로 나 자신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방법도 강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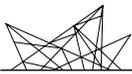
나무를 위한 내 나름의 정성과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 몇 번의 봄을 맞이하고 보내는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 이제 그 성장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봄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한 그루의 느티나무에게서 자연의 신비를 배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곽승현 목사 & 이미경 사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기까지 ‘심’과 ‘위로’가 있는 따뜻하고 결 고운 동행

취재 · 전영의 / 사진 · 최성직

‘빛! 2020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빛의 해이다. 교회 포어 또한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이다. 우리는 어떤 빛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거룩한 빛 채움’을 향한 뜨거운 도전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곽승현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입고, 세상 속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빛을 품고 있을까? 그것으로 어둠 한 조각은 캐낼 수 있을까? 거룩한 빛을 입고, 거룩한 빛이 되라! 그 소명을 삶에 싣고 ‘빛’을 향해 달려가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기까지.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 Deut



서로에게 '침과 위안'을 얻는다는 곽승현 목사와 이미경 사모. 닳은 미소에서 함께한 시간이 얽혀진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건 중요치 않다. 늘 그랬듯 그렇게 동행하며 누구라도 와서 깃들 수 있는 침과 위안이 있는 교회를 기꾸어 가겠다는 곽승현 목사와 이미경 사모



☞ 2020년 새해 첫날 드린 광승현 목사 가정의 '1·10·10 워십패밀리' 가정예배. 매 주일 밤 11시에 가정예배를 드린다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 출발점은 '가족'

광승현 목사의 일과 중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홈페이지 '1·10·10 워십패밀리' 게시판을 둘러보는 일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예배 후 올린 글과 인증 사진을 꼼꼼히 살펴 본 후 빠짐없이 댓글로 격려를 전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1·10·10 워십패밀리'는 '온 가족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에 주보에 실린 말씀으로 10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예배 운동'이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 온 광승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까'를 늘 고민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난 한 해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성경 강좌 '바ible 하이킹'과 '디도와'의 찬한 잔을 진행

한데 이어 올해는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1·10·10 워십패밀리', '도전! 가족 성경 릴레이', '빛 가득 온 가족 금요기도회' 등이 있다. 세 프로그램 명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는 바로 '가족'이다. 광승현 목사는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의 포커스를 '가족에 맞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도를 축소하면 '가정'으로 좁혀지잖아요. 자녀, 남편, 아내 등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학교, 직장, 교회,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이어가지를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첫 시작하는 예배의 걸음이 이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등 가정예배 인증 글마다 박승현 목사의 격려 댓글이 빼짐없이 달려있다. 온 가족이 1년 1독 하자는 성경통독 프로젝트 '도전! 가족 성경 릴레이'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빛 가득 온 가족 금요기도회' 또한 교인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영적 거름이 되고 있다.

목장 대심방, 장로님들과 디도서 펼치기

'성도들과 더불어! 박승현 목사가 지향하는 목회다. 성도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박승현 목사의 노력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목장 대심방이다. 지난해 시무·사역 장로 가정심방에 이어 올해는 목장대심방을 통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

1만 7천여 명의 교인의 가정을 일일이 심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각 교구에 속해 있는 390여 개의 목장을 목장예배 때 심방함으로써 교인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교구 소속 목장부터 목

장 대심방을 시작한 박승현 목사와 이미경 사모는 예배 후 목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교인들의 삶과 신앙에 귀를 기울인다.

박승현 목사가 새롭게 여는 성경 강좌가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장로가 수강 대상인 '장로님과 함께 하는 디도와의 茶 한 잔'이다.

박승현 목사가 디도서를 장로 대상 성경 강좌로 택한 것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교회의 장로를 세우며 당부한 '장로의 기준'이 디도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장로의 자격 첫 번째가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가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외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가정에서의 생활을 중시했습니다. 디도서를 장로 가이드북이라고도 합니다."

박승현 목사는 '장로님과 함께 하는 디도와의 茶 한 잔' 강좌가 모태가 되어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제자훈련이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평신도가 깨어나길 기대한다.



※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EXPLO 2020 통일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리더십 확대회의. 박승현 목사는 'EXPLO 2020 통일선교대회' 통일선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미경 사모

가정 사역에 뜨거운 소명 느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마더와이즈(MOTHERWISE) 1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더와이즈(MOTHERWISE) 1기' 개강이 올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이미경 사모가 진행할 마더와이즈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 대상이다. 이미경 사모는 이미 충일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통해 교회 곳곳에 많은 여성 리더를 세운 마더와이즈 은사가 있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의 첫 사역이고, 교회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역이기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은 아마 '어머니'일 것이다. 누구나 자녀에겐 최고의 어머니를 꿈꾸지만 쉽지 않다.

마더와이즈는 '자유', '회복', '지혜'라는 세 개의 대 주제를 통하여 수강생이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남편과 여성의 관계,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와 세상과의 관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삶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마더와이즈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고 훌륭한 리더가 많이 세워져 교회 내 여성 사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이미경 사모는 말한다.

이미경 사모는 또 '믿음의 다음 세대 세우기', '깨어진 가정 일으키기' 등의 가정 사역에도 열



» 이미경 사모는 '마더와이즈', '생활신앙 사역'에 이어 '믿음의 다음 세대 세우기', '깨어진 가정 일으키기' 등의 가정 사역도 차츰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을 갖고 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다음 세대를 일컬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다.

이미경 사모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부모 세대가 '신앙의 대 잇기'에 깨어 있어야 하며, 신앙 대 잇기의 대상을 '내 자녀'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녀가 더불어 살아갈 다음 세대 전체를 봐야 한다고 한다. 다음 세대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가슴 뛰는 일에 날개 달아 주기

지우(22), 지훈(20), 지원(18). 광승현 목사님과 이미경 사모의 세 자녀이다. 꿈과 은사가 모두 다르다.

이화여대 2학년인 지우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 중이고, 롤 모델이 아빠인 둘째 지훈이는 광승현 목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목회자, 선교사, NGO에서 일하는 것이 지훈이의 꿈이다. 중학교 때 필리핀 쓰

레기 마을에서 그곳의 선교사를 도와 2년 반 동안 빈민 사역을 하기도 한 지훈이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셋째 지원이. 지원이의 마음을 빼앗은 e스포츠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협동을 통한 팀플레이 액션이 일품인 '리그 오브 레전드'이다. 지원이가 재학 중이던 덕이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꿈을 좇아 e스포츠 대학학교를 다시 진학하는데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사람은 광승현 목사라고 한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종종 말씀하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막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 주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광승현 목사님과 이미경 사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삶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것', '무한사랑', '꿈에 날개 달아 주기'이다.

한국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얼마전 한 여론 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봉사와 구제 활동'을, 비기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묻는 질문에 광승현 목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못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녔다면 과연 크리스천인가를 생각해 봐야지요."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 기독교인의 윤리성, 도덕성 회복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주었다.

머리도 잘 감지 않고 웃도 대충 입고 다니는 딸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머리도 감고, 웃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전 이게 편한데요." 딸의 대답이다.

딸에게 곧 변화가 찾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머리를 깨끗이 감고, 옷차림도 곱고 단정해졌다.

광승현 목사는 윤리성과 도덕성은 회복하자고 외쳐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갖춰진다고 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 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누구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어요."라며 광승현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들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한다.

한결같은 사람, 유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뱃속 깊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광승현 목사를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말에 이미경 사모는 이렇게 답했다.

광승현 목사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여인,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사람이지요."라며 애정을 표시한다.

광승현 목사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이미경 사모는 다시 이어간다.

"하나님께 한결같은이 신앙인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자녀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성실함과 따뜻함에 늘 고맙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웃음)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회자 중에 가장 존경스러워요. 큰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법이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죠.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서 기쁩니다."

목회자가 쉬는 월요일이면 노트북을 들고 분위기를 좋은 카페를 찾는다. 광승현 목사와 이미경 사모. 달달한 라떼를 앞에 두고 광승현 목사는 설교를, 이미경 사모는 '마더와이즈', '생활신앙' 등의 강의를 준비한다고 한다.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서로의 앞을 지켜 주고 있는 그 모습처럼 따뜻한 것이 있을까. 또 이처럼 걸 고운 동행이 있을까.

☞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인들의 교회 출입이 제한되자 광승현 목사는 사순절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하였다. 사진은 '사순절 40일 특별 1.10.10 가정예배 Day3'





☞ 삼일문화원에서 연 한국 문화 체험 행사 중 붓으로 한글 쓰기. 좋아하는 K팝스타, 지명, 이름 등 글씨가 수준급이다

러시아 땅 고려인 향한 사랑 소수 민족이라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글 · 강성광 선교사(러시아)

고려인 사랑, 삼일문화원

안녕하세요. 러시아 볼고그리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성광, 권주영 선교사입니다. 겨자씨를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1년 전 전해 드린 볼고그리드 백리모르스크교회 사역에 이어 이번에는 삼일문화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삼일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까?”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역도 선교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 삼일문화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일문화원은 저희의 선임(현재는 은퇴) 선교사님이신 이형근 목사님께서 고려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995년, 모스크바에 세운 단체로 당시로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 약 15년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오다가 은퇴 이후 이어 갈 사람이 없어 근 10년간 방치되었고 존폐 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양을 받은 것도 동일하게 고려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러 간 학술, 문화 교류 행사 펼쳐

제 아내 권주영 선교사는 20대 방향하던 시절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우즈베키스탄에서 8개월 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첫 대상이 고려인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와서 고려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학원에서 고려인 역사로 학위를 밟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 연구차 떠났던 볼고그라드에서 이형근 목사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삼일문화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땅에서 소수민족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주로 한-러 간 학술,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 왔습니다.

가령 러시아 내 한국학 학자들의 도서 출판을 지원하고, 한-러 관계사를 중심으로 수십 차례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출판하는 일 등입니다. 또한 고려인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등을 꾸준히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삼일문화원은 삼일문화원 2.0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주 활동 무대를 모스크바, 삿페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서 한국학 기반이 약한 러시아 남부로 옮기고 법인 주소도 볼고그라드로 이전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 가을부터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지원을 시작해 주신 덕분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또 삼일문화원에서 활동할 회원들도 러시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세대 젊은 학자들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글, 한국 문화 전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뿌리모르스크 시골과 볼고그라드 시내, 두 군데에서 각각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가을 학기부터는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 내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연말이면 7,000부 정도의 음력 달력을 제작하여 러시아 서남부 25여 곳의 고려인 공동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한국어 수업 외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기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학술 대회 개최, 도서 번역 출판 등의 활동도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겉모양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과 활동은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사역이지만 고려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교회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과 더불어, 삼일문화원 사역이 러시아 사회에서 고려인들이 어깨를 펴고 살아가게 만드는 또 다른 날개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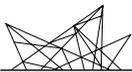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한글 학교 학생 모집 오리엔테이션(2019년 8월, 볼고그라드주립도서관, 현지 고려인 단체 미라나와 협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매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볼고그라드국립대학교에 개설한 한국어 강좌. 2019년 9월 첫 수업 때의 모습. 유료 강좌인데도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출발이 좋았다
3. 음력 달력 배포 작업 중. 그동안 러시아 남·서부의 고려인들에게만 배포했는데 벨라루시 민스크고려인협회의 요청으로 올해부터 보낸다

☑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찾아 뵙는 이형근 선교사님과 우리 가족. 현지 사역에 대해 조절조절 말씀드리면 너무나 재미있게 들어주신다. 몇 년 전 실명을 하셔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홍희란 마마클럽 경기 북부 대표 팀장

500여 개 교회의 중보기도연합 통해 통일 한국 준비

취재 · 김용기 / 사진 · 박승언, 마마클럽중보기도회



☞ 마마클럽 포스터

☞ 2019년 11월 총만한교회에서 열린 마마클럽 연합기도회에서 홍희란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로의 레일을 놓는 일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서지 못할 것 같고, 나라가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죠. 그리고 20년 넘게 중보기도자로 살고 있어요.”

경기 북부 지역 여신도들의 연합 중보기도 모임인 '마마클럽' 경기 북부 대표 팀장을 맡고 있는 홍희란 거룩한빛광성교회 장로를 만났다.

“처음 중보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깨어짐이었어요. 아버지의 간암 선고, 다니던 교회의 갑작스런 분리와 갈등 등 절망의 순간에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중보기도의 비전을 보여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소위 '포물질' 기도를 그때

배웠다”는 홍 장로는 “그날 이후 교회와 선교 단체 중보기도 모임을 오가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돕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고양시로 이사를 오며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홍 장로는 교회 내에서도 '예수마음중보기도학교'를 처음 설립해 20기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교회의 중보기도 운동에 불을 붙였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로의 레일을 놓는 일”이라는 홍 장로는 “거룩한 빛운정교회의 분립과 개척,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금식기도회 등 교회의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세워 교회의 사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마미클럽 연합기도회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해 예배를 드린다

◀ 2019년 12월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마미클럽 연합기도회 접수 현장

마미클럽을 통해 교회와 지역 간 연합 중보기도 운동 계획

4년 전 중보기도 전문 장로로 피택된 홍 장로는 그동안의 중보기도학교 운영 등 오랜 기간 동안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에도 전파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마미클럽을 만났다.

“교회 내에서 운영된 중보기도학교 수료생 가운데 30%는 다른 교회와 지역에서 온 분들”이라는 홍 장로는 “정성진 목사님의 소개로 마미클럽을 알게 되고 교회 내의 중보기도 운동을 지역과 교회 간의 연합된 기도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마미클럽은 부산 지역의 여성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보기도 모임이 지역으로 확대되며 부산 북음화의 성공 모델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어머니들의 순수한 연합 기도 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산의 마미클럽은 지역의 교회 간 연합을 통한 기도 모임에서 직장과 학교 등 사회 각 처소로 기도 모임이 확산되며 4%에 불과하던 부산 지역 북음화율을 11%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마미클럽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연합해 중립적 연합 기도 모임으로 확대되며 창원, 양산, 제주, 김해, 경기 북부 등지에서도 청년과 여성이 중심이 된 중보기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6월 22~26일에는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한국대학생선교회, CBMC경기북부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통일선교대회를 위해 연합 중보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 연합 중보기도로 준비

평화누리공원과 경기 북부 일원에서 열리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는 화해와 용서로 상생하게 될 북측통일의 원년을 선포하고 중보기도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 연합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홍 장로는 “이번 대회는 남과 북, 동과 서, 계층과 세대, 교회와 교회,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북측 통일을 준비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로는 “지난해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첫 준비 모임을 가진 데 이어 11월 충만교회, 12월 일산광림교회, 올해 1월 한소망교회, 2월 거룩한빛광성교회, 3월 일산장로교회, 4월 일산동안교회 등 6월 본행사가 열리기까지 교회의 연합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중보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중보기도의 문을 모든 열방까지 넓히는 비전을 받았는데 마미클럽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삼 놀라울 뿐”이라는 홍 장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500여 개 교회의 중보기도 연합을 통해 지역을 거룩하게 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장로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연합해 기도의 레일을 잘 마련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기도의 길을 타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가 그런 중보기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워라밸’ 시대는 저물고, ‘워라인’ 시대가 온다!

글 · 이재형(비즈니스임팩트 대표)

최근 미국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대신에 ‘워라인(Work-Life Integration, 일과 삶의 통합)’이 주목 받고 있다. 업무와 삶을 구분하는 것보다 일과 삶을 융합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미국기업들은 워라인을 인재 관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한편 채용 과정에까지 접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워라인이 주목받는 배경은 무엇일까?

Y세대 Z세대

그 실마리는 Y세대와 Z세대에 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업무에 대한 ‘의미’, ‘의욕’과 같은 요소를 중요시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장욕구가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추구하던 Y세대 에 비해, 카페에서 공부하고 메일도 쓰고 친구랑 수다떨며 자란 Z세대는 일과 삶이 통합되어 시너지를 내는 워라인을 기대한다.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워라인은 일에서 느끼는 성취와 성장, 삶의 동력이 되고, 다시 행복한 삶이 고성과를 창출하는 상호보완적 삶의 형태를 말한다.

Z세대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의 현명한 자기 성장 및 자기계발 전략 역시, 워라인에 답이 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낸다. 따라서 일과 삶을 분리하기보다는, 현재의 일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찾는 것, 즉 워라인이 가장 현명한 인생 전략인 것이다. 워라인을 하게 되면, 자신도 성장하고, 회사의 성장에도 일조하는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쌓은 역량을 제2의 인생 설계와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40대 말에서 50대 초반,

이른바 ‘4말(末)5초(初)’시대와 직장인의 인생 후반 계획 역시 워라인에 답이 있는 것이다.

시장(Market)이 알아주는 전문성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워라인을 추구하며 일과 자기계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워라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문성’이다.

삼성전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진단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역량 진단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성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도 마찬가지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전문성이다. 회사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행여나 등 떠밀려 야생에 나가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가 전전터면 밖은 자옥’인 세상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란, 한 마디로 시장(Market)이 알아주는 전문 역량을 말한다. 30, 40대라면 직장에서의 전공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 전략, 기획, 마





케팅, 영업, 기술……. 이런 분야들 중 자신 있는 분야가 없다면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고 해서 밖에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기획 업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사실 누군가가 제공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기획 부서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사람들은 이런 업무를 대단한 인재들이 하는 일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업무를 잘해서 인사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그 사람을 기획 전문가로 인정해 줄까?

물론 기획서나 보고서 잘 쓰는 법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들이 있다. 그들은 외부에서도 '기획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경영 능력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경영자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사회에서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사람은 막상 조직을 떠나면 회사에서 역

량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범용성이 없는 잔재주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지는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이 알아주는 전문 역량을 기르라는 것이다. 그게 자신과 회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통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나는 이러한 역량을 나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발가벗은 힘(Naked Strength)'이라고 부른다. 발가벗은 힘은 내 이름 석 자만으로 회사 인팍에서 모두 통하는 진짜 역량을 말한다.

스마트한 워라인, 발가벗은 힘을 키워라

그렇다면 발가벗은 힘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는 매슬로우(A. H. Maslow)가 말한 인간의 5단계 욕구(생리적 욕구-안전에 관한 욕구-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존경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중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

둘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력으로 직결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셋째, '링크(Link)'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 확보와, 이 일을 근간으로 인접 분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링크 역량이 중요하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개편이 잦은데, 기존에 하던 업무와 새롭게 맡게 되는 업무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 전문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헤드헌팅 시장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경력, 즉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이직을 자주 한 사람은 구직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자신의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해 스마트한 워라인을 하고 있는가? 100세 시대, 워라인 시대에 중요한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회사 인팍에서 모두 통하는 진짜 역량, 즉 발가벗은 힘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이재형 작가, 칼럼니스트, 전략 및 조직 변화와 혁신 분야의 비즈니스 교육·코칭·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KT 전략 기획실 등을 거쳐 KT그룹사 CFO(최고재무책임자) 겸 경영 기획 총괄로 일했다.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CII 인증 전문코치(CPCC), ICF(국제코치연맹) 인증 전문코치(PCC), (사)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KPC)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발가벗은 힘』, 『스마트하게 경영하고 두려움 없이 실행하라』, 『전략을 혁신하라』, 『식당부자들의 성공전략』, 『인생은 전략이다』가 있다.



신천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신천지 바로 알기

글 · 탁지원(월간 현대종교 대표, 서울신학대학교 및 코스타 강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이단의 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야 쓰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므로 이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기독교 이단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현장



왜곡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신천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과거 문제성 단체였던 ‘장막성전’에서 분파된 이단 단체이다. 1990년대 초부터 산하 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앞세워 “성경의 모든 것을 3~6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며 왜곡(歪曲)된 성경 해석으로 많은 정통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거리나 인근 지하철 입구에서 상시로 홍보물을 나눠 주거나 부착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친다. 신앙생활이나 가정, 사회생활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성경 지식에 갈급해 하는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정통 교회를 비판하며, 비유와 비사로 성경을 풀어 ‘선민적 우월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통 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잘못된 성경관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과천에 본부를 두고 지역별 12지파를 형성, 2020년 현재 21만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

신천지의 창교자 이만희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는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신천지 교회 발간, 『영행』). 서울로 상경해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다 당시 18세의 학생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장막성전의 어린 종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후 유 씨를 추종하게 된다. 하지만 1967년 2월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이탈한 후 1971년 유재열을 고소해 법정에서 세우기도 했다. 이후 1980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고,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신천지, 성경 교육 후 새 신자 교육으로

『신천지발전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 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라고 주장한다.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24장로를 중심으로 지역 교회와 신학원이 7교육장, 12지파로 나뉘어 있다.

신천지의 성경 교육은 초급(25과), 중급(40과), 고급(22과)으로 나뉘며, 각 2개월씩 총 6개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모두 통달하여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 방식은 정통 교회의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위 ‘비유 풀이’로

진행되는데 자의적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신천지 교인이 되어 새 신자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세밀하고 계획적이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성도에게 접근한다. 포교 방법을 교육하는 책도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미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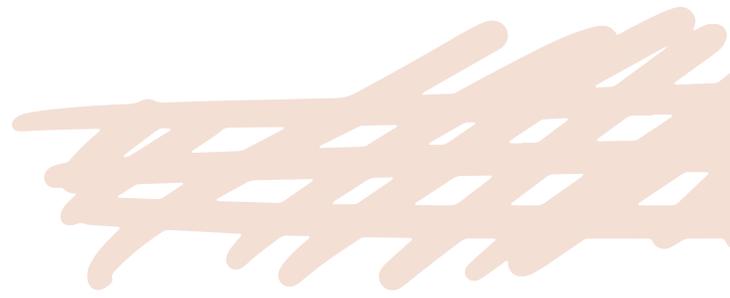
신천지는 정통 교회 교인 포교와 집회 전도, 신학교 전도, 대학생 전도, 대중교통 내 전도, 노방전도 및 좌판 전도, 가까운 지인 전도, 직장 전도, 다락방 전도 방법 등을 사용한다.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상세한 포교 지침서를 마련해 구성원을 교육할 정도이다.

그간 ‘성경 세미나’ 등의 위장 집회, ‘추수권(정통 교회에 위장 잠입한 신천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출처-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 신천지 새 예루살렘성 마크(출처-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 '한기총 해체, CBS 폐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한기총과 CBS가 존재해선 안되는 이유

- 1. 기독교와 정계 유착
'국가조찬기도회' 권력의 시대 역할, 유신체제와 신군부 독재의 동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법 제정도 좌지우지하는 기독교 권력
- 2. 기독교의 기업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대기업화, 교회 세습, 대형 교회 건축, 교회 한글 발행 등.
- 3. 기독교의 부패상 미화
교단 후원금으로 운영 - 불공정한 보도, 인권유린 개종교육 정당화 - 잘못된 가치관 형성, 편파, 허위, 왜곡 보도 - 국민의 알 권리 훼손!

지 성도를 뜻함)으로 교회에 잠입하는 방법, 정통 교회 전체를 포섭하는 '산 옮기기(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옮김을 뜻함) 전도 방법, '가나안 정복 7단계', 그리고 정통 교회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위장 교회' 까지 등장했으며, SNS 등을 통해서 포교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청년 들을 중심으로 포교에 열을 올린다.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이단들 내에 서 청년들 교세가 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

신천지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정 파괴이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가출해 버리거나 대화의 단절이 오는 경우 등이다. 현재 이 단에 의한 피해자들의 숫자는 직, 간접적으로 200여만 명 정도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피해는 교회의 분열이다. 각 교회마다 신천지의 위장 침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정통 교회에 새 신자로 위장해 등록하고, 아울러 교회를 분열코 자 했던 적도 많았다.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명 '산 옮기기'라는 것도 있 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이단상담소 등 전문 기관에서 이단에 빠진 이를 회복 및 치유하는 상담 프로그램, 후속 교육, 예방 세미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변에 이단 의 피해자들이 있다면 회복 사역자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좋다.

한편 2018년 12월, 신천지 탈퇴자 세 명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속아 허 비된 시간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신천지 탈퇴자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승소가 더 단단 한 초석이 되어 또 다른 승리를 이끌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적 대처 필요

평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단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가 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단은 단지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에 교회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대 처해야 한다.

먼저 각 교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이단에 관한 관심과 이해 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들의 미혹과 전략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나 교육, 간단한 광고 등이 필요하다.

교회 차원의 신천지 반대 시위나 그 외 이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대 처 움직임도 있다.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라든지 청평 지역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반대 등의 활동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다하 고 있으니 우리 믿는 이들이 더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신천지의 한국 교회를 향한 압박이 거세어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신천지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 주가 사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후계 구도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내 부단속을 위한 외부와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음은 저들의 몰락이 얼마남 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차분히 경계와 예방의 마음을 갖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김남희 및 코로나19와 신천지

지난 2월 16일, 신천지 실세였던 김남희가 존존티비와 1시간 20여 분에 걸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만희가 영혼 결혼식을 빙자해 자금을 착취한 내용과 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씨는 이만희가 본인에게 친필로 작성한 서신과 증거 사진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였다. 김 씨는 자신의 처지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평가하며 다시 한번 신천지에 남아있는 신도들에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간곡히 설득했다.

현재 신천지의 이유들만 열 곳어넘기에 김 씨가 이단에서 빠져나온 것이 과연 회개와 더불어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계속해서 그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 이후에는 코로나19와 신천지의 문제가 떠들썩했었다. 이 문제는 당시 <현대종교> 탁지일 교수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 신천지가 주도하는 시위

탁지일 교수의 글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염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교회와 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들'이다. 단지 감염이 일어난 곳이 신천지 모임처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선입관과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무분별한 비난은 조심스럽다.

둘,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천지 조직을 보호'할 목적이나 '자신의 정체를 감출' 목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곳이 신천지 모임처이기에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신천지 모임처의 '공간적' 특징이다. 폐쇄적인 공간 바닥에 촘촘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간 및 대인 접촉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감염 확산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둘째, 신천지의 '관리적' 특징이다. 신천지 모임 참석은 기성 종교들과

는 다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신천지 모임처에 들어오는 신도들에 대한 관리와 파악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외부인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참석자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감염자가 방역 통제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셋째, 신천지의 '조직적' 특징이다. 대구교회에 모인 신천지 핵심 신도들은, 기성교회, 거리, 가정, 그리고 하부 단위 조직들로 흩어져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활동은 전면 중지되어야 하며, 실행 여부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신천지의 '교리적' 특징이다.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위 모략(거짓말) 교리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신천지 신도인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자가 격리를 소홀히 할 경우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들'이다. 따라서 불안에 떠는 주변 사회와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거짓'과 '위장'이 아니라, '정직'과 '협조'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기독교박물관 정면 모습. 입구에는 일곱 촛대가 서 있고, 벽에는 '베레쉬트 (태초에)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다. 박물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식물들을 보면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성경 유물 90% 소장 세계기독교박물관 3개월 시험 운영 마치고 4월 개관

글 / 사진 · 김중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성경 유물의 90%인 1만 3천 점을 소장하고 개관을 앞둔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 이스라엘을 1/5000로 축소한 성서식물원에서는 70여 종의 성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시내 산 부근에서는 떨기나무를 볼 수 있고, 브엘세바에서는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성경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1. 관장 김중식 목사. KOTRA에 재직하면서 35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물건 1만 3천 점을 수집하였다
2. 양자축 50장을 사용하여 필사한 1400년대의 예멘 토라(Torah). 서기관은 토라를 필사할 때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 알점일확이라도 틀리면 그곳을 오려 내고 다른 가죽을 덧붙여 필사해야 하는데, 박물관에서는 땀질한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다
3. 이스라엘에서 전통 방식에 따라 양털로 짠 물매. 물매는 무릿매의 준말이며, 최대 사거리 477m이다. 물매를 새총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 sling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수금. 성경에 나오는 악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갈릴리 호수의 별명 긴네렛은 호수가 수금(킨노르)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되었다. 십현금은 수금과는 다른 악기이며, 유대인들은 십현금이 재현되면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믿는다

4



해설사 설명 들으며 성경 시대 여행

세계기독교박물관(이하 세기박)이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다. 3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을 마치고 곧 개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충북 제천에 마련된 신축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건물 정면에 새겨진 큼직한 히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כּוּמִי(베레쉬트), 그것은 성경 본문의 첫 단어 '태초에'이다.

건물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ㄴ(미음)자'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요한 계시록에 설명된 천국 형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1전시실은 마가 다락방과 같은 크기로 설계되었고, 제2전시실은 나사렛 회당 크기에 맞추어 지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시실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을 1/5000로 축소한 성서식물원에서 70여종의 식물들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내 산 부근에서는 떨기 나무를 볼 수 있고, 브엘세비에서는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세기박에서는 해설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것 또한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 된 모습이다. 대부분의 전시품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에서 수집된 데다 물건 속에 스며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열 처녀가 손에 들고 나간 것은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아해 기름도 한 움큼이 아니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던지고, 들어 보고, 굽고, 맛보며 성경 시대 체험

세기박이 소장한 성경 속 물건은 모두 1만 3천 점이나 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전시하기에는 공간도 부족하지만, 90여 분의 관람 시간으로는 1천 점을 보기에 빠듯하다. 그래서 전시품을 수시로 교체하고 재방문자에게는 할인 혜택도 준다.

전시품 교체는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언제 방문해도 항상 새로운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절기관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수전절, 부림절, 안식일 관련 전시를 번갈아 볼 수 있고, 제4전시실에서는 농기구(여름)와 식물 표본(겨울)을 볼 수 있다. 악기관에서는 그다음 해에 무기 종류를 볼 수 있게 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물매 던지기, 달란트 무게 들어 보기, 메주자 만지기, 무교병 굽기, 향유 냄세 맡아 보기, 사해 소금 맛보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면 교회나 단체에게는 식사 장소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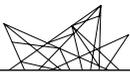
성경 사물 90% 소장한 세계 유일의 박물관

지난 35년 동안 KOTRA에 재직하면서 수집해 온 성경 유물을 세계기독교박물관을 통해서 선보이게 돼 오랜 숙제를 어느 정도는 마친 기분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세기박에는 아브라함 시대 등잔처럼 오래된 유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몇 백년 전의 모델이나 스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할례 도구, 해웅, 역청, 몰약 등은 모든 기독교인이 보고 싶어 하는 물건으로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감탄하게 된다. 성경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의 90%를 소장한 박물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기박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관람해야 할 필수 코스가 될 전망이다.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원이지만 단체에게는 할인되며, 다자녀 가족이나 재방문자에게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설사 준비 관계로 단체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주일 오전과 수요일에는 휴관한다(문의 043-651-0191).



« 달란트 무게 들어 보기 체험. 달란트를 재능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원 사전도 중세 시대에 시작된 오해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라고 했다. 천국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고 가진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광성축구선교단 필리핀 팔라완 2차 선교

복음 실은 축구공

필리핀으로 슛!

글/사진 · 오훈 집사(광성축구선교단원)



☞ 팔라완 지역 축구팀과 광성축구선교단 2년째 우정을 나누고 있다



※ 팔라완 지역 축구팀과 광성축구선교단의 경기를 관람 중인 현지인들.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 광성축구선교단에서 준비해 간 축구공을 팔라완 지역 축구팀에게 전달

⇩

1. 전도를 위해 광성축구선교단이 준비해 간 말씀과 사탕
2. 팔라완 지역 주민들에게 만남빙수카페 위치를 안내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광성축구선교단
3. 팔라완 지역의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할 만남빙수카페. 운영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김정조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실 때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축구 선교팀인 광성축구선교단과 함께 축구를 즐겨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종종 "광성축구선교단이 필리핀에 와서 현지인들과 축구도 하고 전도도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팔라완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고,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성축구선교단은 '필리핀 축구화 보내기' 운동을 펼쳐 교인들이 안 신는 축구화를 모아 필리핀에 보내는 사역을 시작으로 축구를 매개체로 한 필리핀 선교를 차츰 넓혀 갔습니다. 그러던 2019년 1월 필리핀 팔라완 지역으로 1차 축구 선교를, 지난 1월 2차 축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년 사이 팔라완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팔라완주립대학교 앞에 선교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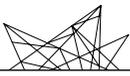
'만남빙수카페! 선교센터의 이름입니다. 만남빙수카페는 현지인들에게 팥빙수와 한국의 음료 등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것은 현지인들과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강한 승부욕으로 경기 중 거친 몸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넘어지면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땀을 닦아 주고, 등을 토닥여 주며 배려 넘치는 축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광성축구선교단이 준비해 간 축구공과 두건 등을 전해 주자 현지인들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전도 활동을 자연스럽게 한 축구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진행 될 3차 축구 선교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김포중앙교회

한국 교회의 시원(始原)을 같이한 유서 깊은 교회

글 · 김용기 / 사진 제공 · 김포중앙교회

김포중앙교회의 전신 김포읍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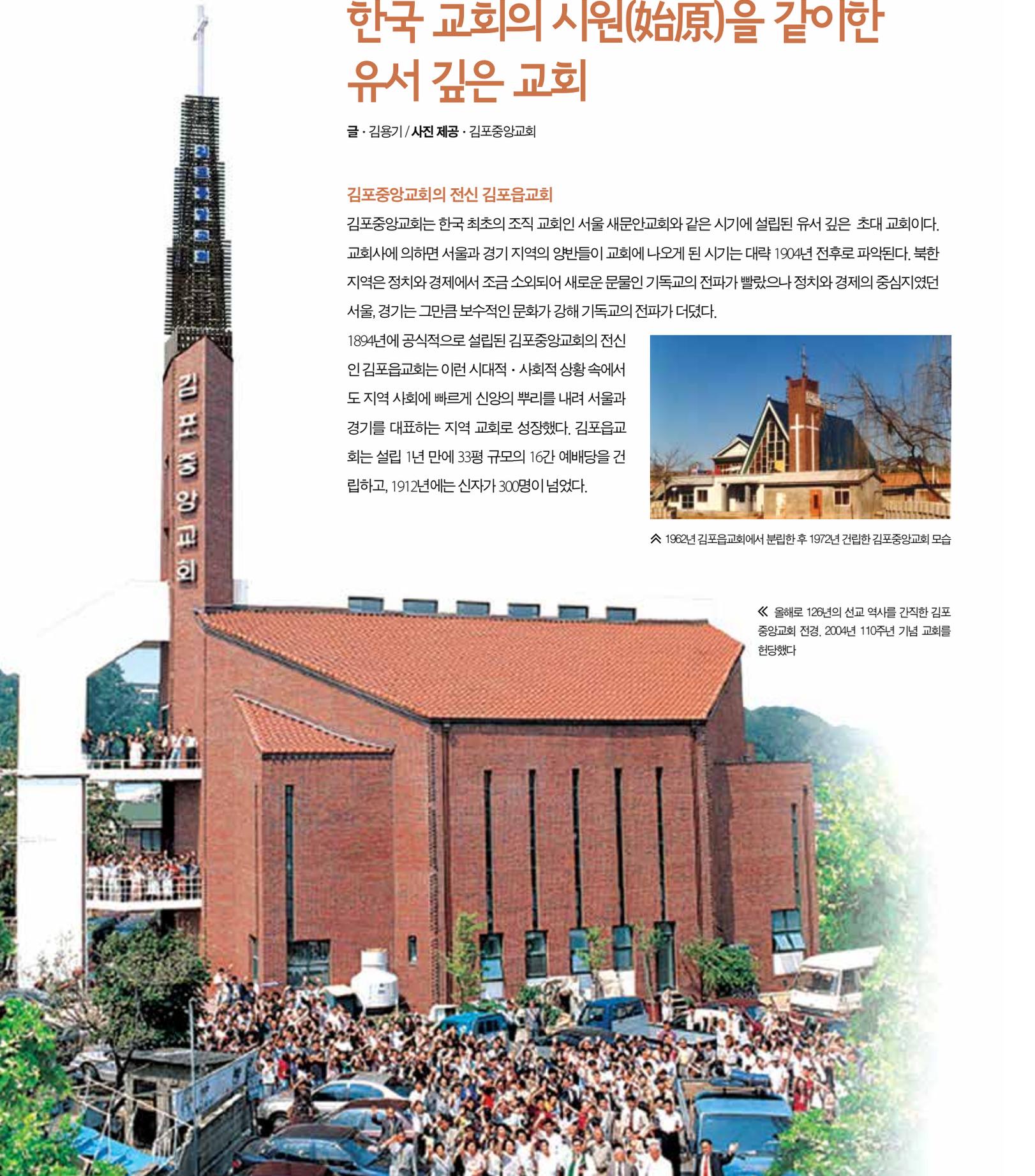
김포중앙교회는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인 서울 새문안교회와 같은 시기에 설립된 유서 깊은 초대 교회이다. 교회사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양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시기는 대략 1904년 전후로 파악된다. 북한 지역은 정치와 경제에서 조금 소외되어 새로운 문물인 기독교의 전파가 빨랐으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서울, 경기도는 그만큼 보수적인 문화가 강해 기독교의 전파가 더뎠다.

1894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김포중앙교회의 전신인 김포읍교회는 이런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지역 사회에 빠르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 서울과 경기를 대표하는 지역 교회로 성장했다. 김포읍교회는 설립 1년 만에 33평 규모의 16간 예배당을 건립하고, 1912년에는 신자가 300명이 넘었다.



☞ 1962년 김포읍교회에서 분립한 후 1972년 건립한 김포중앙교회 모습

◀ 올해로 126년의 선교 역사를 간직한 김포중앙교회 전경. 2004년 110주년 기념 교회를 헌당했다





㉿ 1943년 김포읍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



㉿ 1962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마친 후 김포읍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 받은 언더우드 목사는 김포읍교회 초대 당회장을 지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지 기증으로 교회 신축

김포읍교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헌신적인 선교를 펼쳤던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있다. 새문안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의 파송으로 김포 지역에 들어온 이춘경의 전도로 김포 지역에 미조직 교회가 형성됐다. 이후 인근 고양군 세교교회에서 고군보와 부인 박살라미가 전도에 합세하며 지역 교인들이 점차 늘었다.

선교 결과에 고무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군 북변동 대지 3,500평을 기증했다. 그에 발맞춰 성도들은 700원의 헌금을 모아 예배당 33평, 목사관 15평, 교육관 12평 등 넓은 교회를 새로 지어 지역 선교에 나섰다.

한국인 목사가 없었던 시기 초대 김포읍교회 당회장으로 취임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과 김포를 오가며 전도에 열을 올렸다. 수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장로가 없어 미조직 교회로 있던 김포읍교회는 1912년 이춘경을 초대 장로로 장립하고 교회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 경기 서쪽 지방의 교회는 37개 정도로 이 가운데 장로가 있는 교회는 단 두 개의 교회에 불과했다.

교회의 조직이 성립하면서 교회의 운영과 치리가 안정되며 성장도 두드러졌다. 1915년 노회록 총계표에 따르면 김포읍교회의 신자 수는 1915년 299명, 1916년에는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서울의 새문안교회의 교인 숫자도 300명 규모였던 것을 보면 김포 지역의 기독교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선거제로 임기제 직분자 선출

이 같은 김포 지역의 빠른 복음 전파에는 현대의 교회에서도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민주적 선거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 집사, 조사,

권찰과 같은 직분자를 모두 선거로 뽑았다. 특히 장로를 제외하고는 1~4년 활동을 하고 임기를 마치면 다시 투표를 실시해 선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또한 교회 입교자들에 대해 엄격한 입교 과정을 두어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떼면 세례 문답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여전히 학습 과정에 남아 있도록 해 기독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도록 했다.

교회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책벌(責罰)과 해벌(解罰)의 기준을 정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음주나 이혼, 첩을 들이거나 아내를 버린 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일, 병에 걸려 소경을 청하여 독경(讀經) 하는 일, 우상 숭배, 제사 등이 발견되면 교회의 제제를 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한번에 30명이 넘는 많은 신자가 책벌을 받아 제명되거나 출교를 당하기도 해 교회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빠른 성장을 보이던 김포읍교회는 당회장 언더우드 목사의 귀국과 연이은 서거로 교회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서울의 새문안교회 뿐만 아니라 경기 서쪽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와 당회장 임무를 맡았던 언더우드 목사는 1916년 병으로 인해 미국으로 귀국 후 그해 10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긴 김포읍교회는 언더우드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불투명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교인이 줄어드는 등 성장이 지체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집요한 교회 탄압과 한국 전쟁도 교회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경기 서북부 지역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해 온 김포읍교회는 1962년 통합과 합동 교파로 나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김포중앙교회와 김포제일교회로 분립돼 지역 복음화의 양대 축으로 성장했다. 올해로 126년의 역사를 간직한 김포중앙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아버지·어머니 학교, 노인 학교를 운영하고 중국 등 해외 선교에도 적극 나서며 선교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

글 · 김은숙



☞ 의인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는 헤롯 왕 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에 따라 흠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나 나이가 많도록 수태하지 못하였다.

사가랴는 다윗 왕으로 시작된 24 반열 중 제8 반열이고, 아내 엘리사벳은 이룬의 후손이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다.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할 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13]

우리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데자뷰(기시감)가 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음성이다.

사가랴가 이에 너무 놀라 이 말을 불신하자 곧 병어리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아기가 태어나자 친척들이 모여, 유대인의 전통대로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로 짓자고 하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반대하며 서판을 가져와 '요한'이라고 썼다. 그제야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 찬송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검증해 보시고 의인이라 여겨 큰 축복을 내린 것이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한 큰 종이 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를 이룬 인물이 되었기에 인류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되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마가복음 1:7-8]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쳤다.

일찍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으나, 노아, 욥, 롯 등 몇 안 되는 의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포함된다. 이는 이들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흠 없이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신 종으로 삼으신 것이다.

Zechariah
Elizabeth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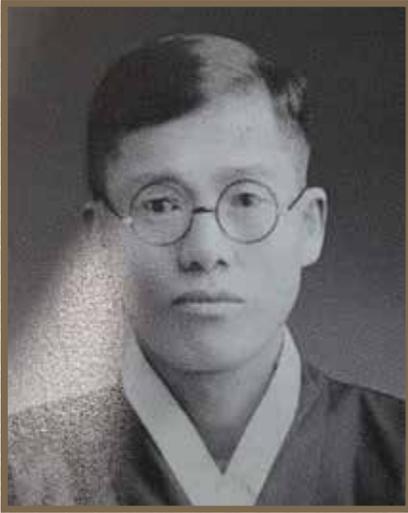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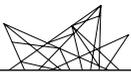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그는 위대한 경건의 사람이요, 전도자였고, 신앙의 용사요, 나환자의 친구요, 원수를 사랑한 자요, 순교자요, 성자이다. 그의 일생은 기도로 호흡삼고, 성경으로 양식을 삼아 영적 만족과 감사, 충만함으로 찬송을 끊지 않은 희세의 경건인이었다.”

- 박형룡 박사의 추모사 중 일부(1950년 10월 29일) -



글 / 사진 · 최경진 목사(칠원교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겨레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손양원 목사의 부모님인
손종일 장로와 김은수 집사

제1부 주님께 부름 받기까지(1902-1925년)

1902년 6월 3일 아버지 손종일과 어머니 김은수의 장남으로 태어난 손양원 목사는 1909년 아버지를 따라 경남 함안에 있는 칠원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1914년에 학습을 받고, 191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칠원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동방요배를 거부하여 퇴학을 당하기도 했지만, 멩호은(F. J. L. Macrae) 선교사의 도움으로 복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부친인 손종일 장로가 3·1운동의 주동자로 옥고를 치르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1921년 동경의 스가모(巢鴨)중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1923년에 귀국합니다.



손양원 목사 부친 손종일 장로 회갑 때
찍은 가족사진(1931년 12월 29일)



제2부 신학교 시절(1926-1938년)

1926년 3월,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한 손양원 목사는 부산 감만동 상애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졸업 후 경남 지역의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1935년(33세)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평양대동강변의 능라도교회 전도사로 시무 하면서 학문과 복음 전도에 진력합니다.

제3부 한센인의 영원한 벗(1939-1950년)

평양신학교 2학년이었던 1937년, 애양원교회 사경회 강사로 초청된 것이 인연이 되어 1939년 7월 1일 여수 애양원교회에 부임하여 한센인들의 목자가 됩니다. 부임 후 애양원 직원들의 좌석과 환우들의 좌석 사이에 있던 분리막을 제거하고, 중환자들이 있는 14호실에 거침없이 출입하였으며, 심지어는 나환자들 환부의 피고름까지도 빨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기도문은 나환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



1. 손양원 목사의 전도사 시절, 평양 신학교 재학 시(1937년 2월 27일)
2. 평양신학교 33회 졸업생 및 교수(동그라미가 손양원 목사)





3

제4부 신사참배 반대와 옥고(1940-1945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손양원 목사는 1940년 9월 25일, 수요일 예배 후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본 형사에게 연행됩니다. 1943년 5월 17일, 만기 출옥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담당 검사가 “덴꼬(轉向)해야 나간다”는 위협을 하자 “당신은 덴꼬가 문제이지만, 나에게서는 신크(신앙, 信仰)가 문제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 해방이 될 때까지 옥중생활을 하게 되는데, 옥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여 옥중 성자로 불리며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4

제5부 원수 사랑과 순교(1948-1950년)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발발하고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좌익 세력에 의해 순교합니다. 천붕(天崩)의 슬픔 속에서도 손양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음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게 됩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몸을 피하라는 교우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체포되어 동년 9월 28일 순교하고 맙니다. 죽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알려집니다.

3. 백범 김구 선생과 손양원 목사
4. 강연 후 김구 선생과 함께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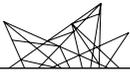
5. 애양원교회 이사 후 손양원 목사와 가족(1939년 7월 14일)

6. 애양원교회 당회원들(1948년 6월 12일)

7. 두 아들 손동인, 동신 형제의 장례식 장면.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앞세우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과 함께 운구했다

8. 손양원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





손양원 목사의 아홉 가지 감사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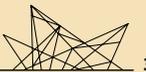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 선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 순교 전 최후 사진. 찬양대원들과 함께(1950년 3월 13일)

1. 전남 여수 손양원기념관
2.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건립된 생가와기념관(2015년 10월 개관)





글/사진
김민수 목사(한남교회)

김민수 목사의 들풀편지 봄

수선화 '꽃이 피니 봄 오고'



제주에서 목회할 때 텃밭이 딸린 작은 들이 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텃밭과 들의 경계는 제주의 검은 화산석이었고,

경계를 지은 들 틈에서는 이런저런 꽃들이 계절 따라 피어났다.

백미는 한겨울에 피어나는 수선화였다.

기적처럼,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날이면 꽃을 피우고, 봄이면 지천으로 피어났다.

공기가 낮게 깔린 새벽이면 수선화의 향기는 초콜릿을 먹는 듯 강렬해서,

'봄은 귀로 보고, 향기는 입으로 맡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수선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의 단편은 이렇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 봄이 오는 것이다.'

신앙도 다르지 않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비로소 보이고,

보이는듯하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聖化(성화) 되어 가는 것이다.

볼 것 많은 '봄'이다.

하나님께서 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2020.02.10	2020.02.11	2020.02.12
2020.02.14	2020.02.16	



김두연, 박은애, 김승찬, 김승환 가정 저녁 9시 30분 매일매일 가정예배

글 · 박은애 집사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 9시 30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가정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단 연습과 늦은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9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드라마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드라마바이블은 많은 믿음의 배우와 성우들이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합니다.

하여 듣는 사람을 마치 성경 시대로 데려가 주는 듯합니다. 배경음악 또한 성경의 내용과 잘 맞아 더 은혜롭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보통 우리 집 제사장인 아빠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대표기도가 끝나면 드라마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우리 가족은 성경을 낭독하는 성우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눈으로 각자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 중간 중간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

분은 아빠가 설명해 주고 또 모르는 성경 단어가 나오면 성경 찬송 낱말사전을 찾아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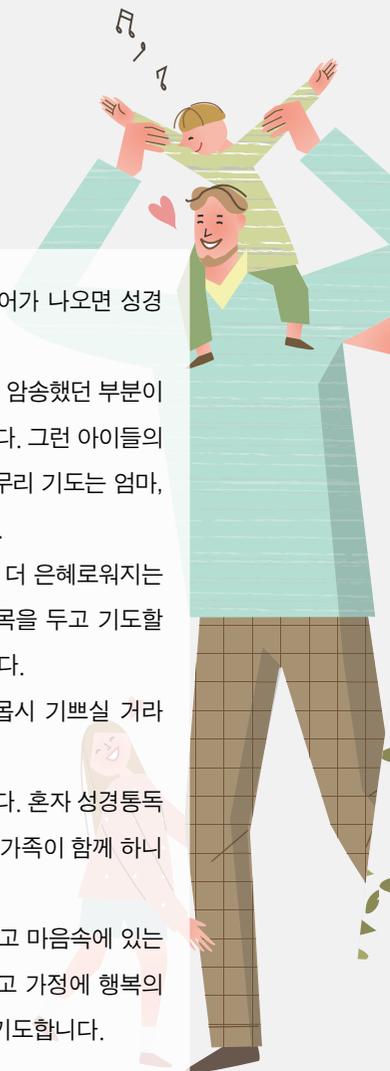
아이들은 주일 학교 또는 어와나 활동 중에서 암송했던 부분이 나오면 “그 구절 아는 거예요.”라며 기뻐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 부부는 더 은혜를 받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이 하루하루 번갈아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기도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부부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몹시 기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가족 모두 성경통독을 하였습니다. 혼자 성경통독을 시작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일수였는데 가족이 함께 하니 가족 모두 성경 1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정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가정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기대(중1)가 예배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



기노준, 조인숙, 기대(중1), 기특(6세) 가정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가정예배

글·조인숙 집사

저희 가정은 큰아들 기대가 일곱 살인 2013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1년에 보통 300일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대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 같이 느끼는 아이에게 혼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소외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때, 가정예배 덕분에 산타가 주는 선물이라는 말 대신 ‘가정예배 300일 상’ 등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지 3, 4년쯤 되면서 어느 날은 가정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신앙 교육 잘하고 있지’ 하는 저를 위한 위안과 만족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박승현 목사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셨을 때 도전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벌써 잘하고 있는데’라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른 가정들의 간증을 보며 놀라고 도전받았습니다. 제 안에 쌓인 자기만족과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 주시는 가정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기특이가 서너 살 때는 가정예배를 지속하는 것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다섯 살부터는 제법 기도를 곧잘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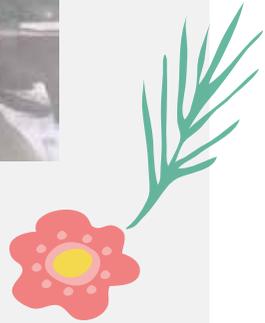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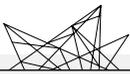
을 보며 아직 너무나 어리게만 보이는 기특이지만 기특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런 기도를 허락하시는구나 감동받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기특이가 형 기대의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인 우리가 몸소 모범을 보이고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꺼리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만약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가정예배는 그런 위기의 때를 위해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저를 깨워 다시 가정예배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 많은 동역자,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닌,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박창원, 김미란, 박수산나, 박서아 가정 가정예배만으로 성경 2독, 올해 3독 목표

글 · 박창원 장로

우리 가정은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45분 예배를 드립니다. 수험생 자녀의 늦은 귀가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금요일기도회를 마치고난 후의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주일에도 부모를 따라 오전 7시까지 교회에 가야 하는 자녀에게도 토요일 아침은 양보할 수 없는 잠과 쉼의 시간이기에 우리 가정의 토요일 오전 9시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한 주에 단 한 번뿐인 가정예배를 힘겹게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테스트하고, 다음 주 암송 말씀을 세 번 합독한 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른 후에 신앙고백, 다음으로 찬송을 한 곡 더 부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1장씩 읽습니다. 가장인 제가 메시지를 선포한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 번씩 기도를 드린 후, 가족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축복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족 공동 기도문은 연말에 작성합니다. 이듬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한 달여간 기도하고 세 가지로 확정해 메타포로 응축하여 한 문장 기도문을 만듭니다.

2020년 우리 가족 공동기도문 만들기

메타포	일, 공부	이웃	생활
케리그마	thanks(감사)	virtue(덕)	joy(기쁨)
한문장기도문	매일 다섯 가지 이상 구체적인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충간소음 때문에 어렵지만 예수님의 자녀답게 미워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쌓겠습니다.	기쁜 일이 많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며 생활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예배만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2독했고 올해 3독 예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품은 뜻이 주의 뜻 같이 되는 것을 넘어 주의 뜻이 우리 가정의 품은 뜻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는 가정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늘도 찬송합니다.



초등부 주일 영상 예배

예수님! 제 찬양 들리시나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맞춰 교회의 모든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모든 순서에 경건을 담고 집중하는 초등부 온라인 예배 현장! 찬양에 맞춰 율동, 두 손 모아 기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룩한빛광성교회 사업자 선교단 광성실업인선교회 1인 기업부터 법인까지, 모두 오세요

취재 · 강건용 안수집사(광성실업인선교회 회장)

할렐루야! 광성실업인선교회 회장 강건용 안수집사입니다.

광성실업인선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자치 기관이며, 1인 기업,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체, 전문직 등 사업을 영위하는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회원 상호 간 교류 및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맺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업종의 결합, 과거에 없던 서비스 및 운영 방식의 출현,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등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AI(인공지능) 출현으로 인간이 하던 업무를 기계가 대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광성실업인선교회는 다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 의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선교 회원들 간의 교류와 배움을 통해서 실업인 선교 단체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가 기독교를 세상에 널리 퍼기 위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듯이, ‘광성실업인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원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노력으로 작게나마 시작한 기업 선교 단체입니다.



광성실업인선교회 회원사 100개 기업 유치 운동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 중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부터 개인, 법인 및 1인 사업체 모두 환영!
혼자 사업하면서 힘든 부분을 광성실업인선교회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선교 회원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광성실업인선교회 선교 사역 활동

1. 매월 광성실업인선교회 월례회(3주차 월요일)

목사님 및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강연 및 회원 간 교류 활동

2. 회원 상호 간 비즈니스 협력 및 나눔

3. 교회 행사 및 지원

4. 선교 기금 마련을 통해 선교 사역 지원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이 추진해 온 선교 사역 및 회원의 발전 교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목적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광성실업인선교회 사업 목표

개인의 먹고 마시고 풍족함을 위한 사업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곳에 사용하는 사업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선교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회원 사업장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매일 회원들 간 순번 기도를 통해 기도 경영

둘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지혜를 배우며, 사업체 영위를 위해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한 기업 경영 리더십 배움

셋째 월례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자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카데미 교육 지원, 내·외부 전문 강사의 기부를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배워 가는 월례회가 되도록 좋은 강연을 다양하게 준비

- 위임 목사님 초빙 : 매년 실업인을 위한 초청 강연회

- 전문가 초빙 강연 : 인사, 노무, 법, 회계, 경영, 영업, 마케팅, 자금 유치, 홍보, 경영 전략 등의 강연

- 해외 시장 발굴 마케팅

- 자기 개발 및 인문학 강연 등

넷째 실업인 선교 회원의 상품 서비스 등을 회원 간 구매 할인 등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구매 연계 지원

다섯째 선교회 활동에서 가장 목표를 두는 주안점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회 회원사의 사업이 성장해 가면서 그 과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고 발전 성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잠시 맡겨두신 사업을 통해 청지기 정신을 받들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사업체가 되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함

여섯째 요즘 젊은 청년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성실업인선교회는 기업 경영자 및 전문가를 구성하여 청년 사업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원하는 젊은 예비 사업자의 경영 자문 활동 지원 및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사업자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투자 연결 및 전문 기관(창투사 연결) 등을 통해 지역의 젊은 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함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글 · 김영석(주시랑찬양단 리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있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어렸을 적 할머니와 어머니 입에서 늘 흘러나오던 찬양, 405장! 그래서 제게 이 찬양은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아버지를 천국 보내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기 직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이 찬양을 들려 드리며 저 또한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그분, 그분은 살아 계시며, 천국은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아버지와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잠시 동안만 못 보는 것이구나! 그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에 주님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겠지.'

매년 아버지 기일이면 우리 가족은 찬송가 405장을 부르며, 이 찬양이 우리 가족에게 준 귀한 은혜를 나누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더진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진리와 사랑,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을 추천해 봅니다.



청년 광장





⌘ 기독교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는 이채은 청년

청년 인터뷰 뉴미디어 PD 이채은

내가 만난 하나님

엄격한 훈련 코치?

공감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복음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뉴미디어 PD 이채은 청년. 취업 준비만 2년 반, 하나님을 원망한 시간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더욱 탄탄하게 빚어 가신 하나님을 느낀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과 예배를 전하는 이채은 PD의 꿈과 열정의 현장 속을 따라가 보자.

취재 · 유동규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은입니다. 현재 기독교 방송국에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 중학생 때부터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Q. '뉴미디어'라니, 신선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복음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는 '영상 세대'라고 불릴 만큼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그중에서도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해요. 젊은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 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에 직접 발걸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음이 참 기뻐요.

요즘은 특히 기독교 채널과 유튜브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안에서 이단적 교리와 진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독교 콘텐츠, 순수한 복음이 꼭 필요하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다음 세대에 큰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Q. 정말 멋진 일이네요,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윤이 좋게도 일찍 진로를 정했어요. 우연히 초등학교 때 콩트를 하게 됐는데, 대본을 쓰고 연기 코치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여쭙어보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PD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 PD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중학생 때 TV에서는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영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와 성품을 세상에 알리는 PD'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꿰어요. PD라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합할수록, 내 꿈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 온라인을 통해 복음과 예배를 전달하는 이채은 뉴미디어 PD.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Q.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 뒤도 술술 풀렸나요?

아니요. 취업 준비만 2년 반을 했어요. 그때와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케이블 채널과 종편 등에서 <마녀사냥>과 같은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음지의 것을 양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야 진짜 숨 쉬는 세상이 됐구나!' 하며 열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열망해 오던 것들이 한순간에 착해빠지고 재미없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지원했던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제 안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계속된 취업 준비 중에, 하루는 침대에 앉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제가 마라톤에서 뛰다가 넘어졌는데 지치고 힘들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완주는 포기하고 '구급차가 와서 결승점까지 데려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훈련 코치님 같다고, 참 야속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펍펍 울었어요.

자존감도 바닥이 되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저를 아프게 할 때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조연출 공고가 났어요. 유급 자봉이라는 형태로요. 한 번도 고려해보지 못한 방향이

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일을 시작했죠. 계속 피디 시험 준비도 같이 하면서요. 얼마 뒤, 일하던 영상 팀에서 인턴으로 조연출을 뽑는 공고가 났어요. 당연히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최종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던 분들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드디어'라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회사에 남성 피디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최종 면접자 중에서 남성 두 분이 합격했어요. 참담했죠. 저는 불합격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에 유급 자봉으로 출근했어야 했거든요. 함께 자봉으로 일했지만, 이젠 인턴이 된 두 사람과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길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한 번 더 해 보자고, 상심이 크겠지만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속은 쓰리지만 꾀웃하게 견뎠어요.

Q.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어요, 두 번째 도전은 어떻게 됐나요?

6개월 뒤, 공채 공고가 났어요. 공채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넘어진 저를 구급차에 태워서 결승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조각 모음이 시작된 거죠.

그동안 다른 회사의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가치,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고 나누며 사랑했던 시간을 전부 세상의 이치에 맞게 재단해야 했어요. 선교도 봉사 활동으로, 교회에서 영상을 만든 일은 적을 수도 없었어요. 평생을 살아왔던 소중한 가치들과 그 안의 제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까지도 불품없는 것으로 평가됐어요. 그런 시선들에 스스로도 부서지고 흔들리며 참 억울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를 하기도 바꾸지 않고, 하기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자소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려고 이 인생을 끌어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했죠.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정말,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PD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복음 콘텐츠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정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저를 빚어 가시고, 더 멋지게 사용해 주셨어요.



☞ 이제는 PD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 가는데 도움을 준 그림. '물 위를 걸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던 예수님은 재촉하시거나 실망하거나 꾸중하시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이 느껴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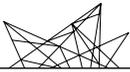


⊃ 취업 과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 꿈에 도착하여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을 깨달았다고 한다

Q. 함께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살아가며 붙잡는 것이 있다면?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미처 못 나눈 이야기가 많아 아쉽네요. 지금은, 영화같이 시작한 회사 생활이지만, 지내다 보니 순간순간 실망도 하고 처음의 이상과는 다른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과 약속한 건 '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실 때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그분이 참 좋아서 그 완전하심을 믿기에, 내 삶의 목표나 방향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을 살고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좇으며 더 알아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도,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하던 시간도, 각각의 페이지가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아픔 대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핀잔하시지만, '즉시' 달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손 내미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갑작스럽지만, WELOVE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참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 파이팅!



우리 함께, 그의 나라에서

글 · 유동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글을 나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며칠을 같은 고민을 올리니 어떤 기도를 또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 당신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만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찬찬히 주기도문을 읽으며 기도를 드리는데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린 뒤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로 이어집니다. ‘우리’였습니다. 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서도, 제가 드린 기도의 주어는 온통 ‘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고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나의 어려움만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함께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조금은 다른 '우리'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마음에 담아 두었던 애통함을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 사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것', '당연한 것'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때입니다. 그 중에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지켜야 할 영역도 있고, 기존에 당연하다고 정의된 것을 완전히 뒤바꾸어야 할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를 만들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시선과 정죄의 말을 뱉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바름'을 주장하느라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교회'가 또 다른 '우리'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이룰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상, '우리'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마 9:10)'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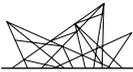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말씀에서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제 옆에 앉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니 말입니다. 각자 죄의 모양과 이름이 다를 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혹 제자로 식사에 참여했다면, 더욱이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하신 자리를 내뺏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어노인팅의 <그의 나라는>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과 넉넉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그리하셨듯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지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나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우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영원한 주님의 집에 함께 기뻐 뛰며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멘토(MENTOR)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글 · 조희성(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우리는 멘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야흐로 인생을 이끌어 줄 참 스승을 찾는 시대가 왔다.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들 멘토를 자칭하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나눈다. 유명 대학교 김 아무개 교수의 '인생사는 강의, 아픔은 경험이 되며 힘이 된다.'라는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다.

교수는 자신의 평생 경험을 전수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결과는 애석하게도 청년들의 분노와 조롱과 멸시다. 그 책의 제목은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대표작이 되었다. 학식이 좋고 인망이 두터우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구어 간 우리의 인생 선배들은 멘토가 되어 주지 못했다. 학생들이 까칠한 탓일까? 아니면 선배들의 이해력이 부족한 걸까?



» 멘토는 무엇이 필요할까

뛰어나고 명망 있는 교수는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멘토라는 말의 어원이 있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친구인 멘토에게 집안일과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맡긴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멘토는 왕자의 친구, 선생,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봐주었다. 이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멘토는 텔레마코스의 친구, 선생, 상담자,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멘토는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큰 흐름이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부모님이 그 역할을 차지한다. 또한 큰 가르침을 준 상담자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다. 어쩌면 책이나 예술 작품으로 당신과 만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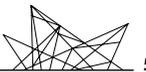
멘토를 이해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삶의 구조로 영접하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분을 닮아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향에 들어가게 된다.

멘토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 숨을 의식하지 않고 쉬듯 자연스럽게. 빈민가를 돌아다니던 마음이 여린 마이크 타이슨은 커스 다마토를 만나 최강의 복싱 선수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다 내어 주겠다고 했다. 헬렌 켈러는 은사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 시청각 장애인의 몸으로 4개 국어와 사회 운동에 힘쓰게 된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멘토라 칭하며 지식을 선물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멘토와 참 스승은 우리에게 관계를 선물한다. 우리도 예수님을 멘토로 만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 멘토는 지식만큼 중요한 관계



십자가의길 크로스로드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역 *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학교
- 다음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상을 길러 '21세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빌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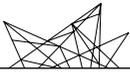
기타 사역 *

- 성경사 지원과 복귀 컨설팅 사역 등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WWW.CROSSROAD.ORG.KR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학로3길 29, 총회청년100주년기념관 4층 T.02-747-0316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T.02-747-0316



여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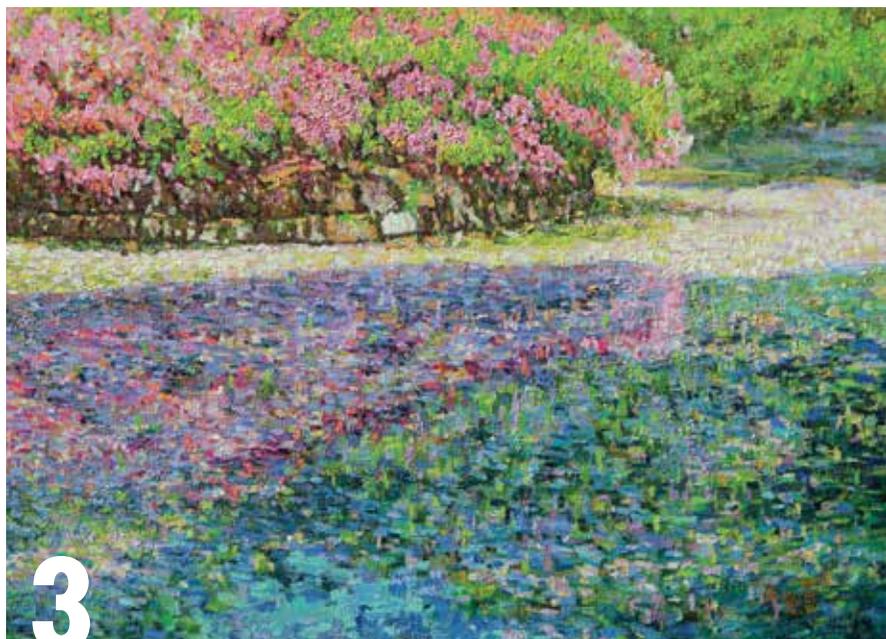
메아리로

김자운

전국조각가협회 이사
누란조각회 회장 역임
前 홍익화우회
한국풍경화회 회원

작가노트

반복하여 중첩되는 유화의 효과로 질감과 함께 자연의 약함과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여러 보이지만 강인하며 무관심에서도 곳곳이 자란 생명들을 자연에서 발견하고,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소박함과 투박함을 지니는 미미한 몸짓에 불구하고 생명체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빛깔과 향기에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이유를…….





겨울을 건너온,

노란 나르시스 수선화꽃차



글/사진 · 김규리(시인, 꽃차 소믈리에)



효능

수선화는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이른 봄에 짙은 티우며 쓸쓸히 봄바람에 꽃을 피우기에 그 효능 또한 대단하다. 해열 작용, 혈액 순환, 생리 불순에 도움을 주며, 여성의 자궁 질환 및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이 밖에 피부염에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 및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다.

노란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매우 밝고 선명한 색이라고 적혀있다. 노란색은 '지식'과 '행복', '도전'을 의미하며,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인 활력을 주어 기분을 즐겁게 해 주는 색이라고 한다.

수선화는 그 유래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 신화 강의 요정 리리오페가 아들을 낳았다. 요정은 용한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아들의 운명을 점쳐 달라고 했다.

“아주 오래 살 것입니다. 단, 자기 자신의 얼굴을 못 본다네요.”

예언자에 의하면 자기의 얼굴을 보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바로 수선화 전설로 유명한 나르키소스다.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제 얼굴에 반해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굶어 죽어 수선화가 된 청년이다.

자화자찬을 뜻하는 영어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바로 이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꽃말은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의 전설에서 자기주의, 또는 자기애를 뜻하게 되었다고 하며 '자부심, 고상함'이다.

수선이란 중국명이며 하늘에 있는 것을 천선, 땅에 있는 것을 지선, 물에 있는 것을 수선이라 한다. 그런 연유로 같은 노란색이지만 프리지아와는 다르게 수선화는 환자의 문병을 갈 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꽃이기도 하다.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이하 생략)...’라고 푸념하고 있지만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봄날 오후다. 나른한 봄날 노란 빛깔의 수선화꽃차를 우린다. 찻잔 속에서 봄의 향기와 에너지를 풍기며 차가 우려질 동안 우리나라 가곡 ‘수선화(김동명 작시, 작곡)’를 듣노라면 진짜로 일상에 지친 피곤이 싹 가시며 삶에 활력을 받는다.



봄!봄!봄!

글 · 최서해(소설가, 1901-1932)

봄, 봄은 또 찾아옵니다.

해마다 찾아드는 봄은 늘 그 봄이나, 그를 맞는 사람의 가슴은 늘 같지 않습니다. 가슴만 달라질 뿐이 아닙니다. 새봄을 맞는 때마다 달라지는 형모는(形貌)는 차마 볼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고 가는 선물인지, 생활이 주고 가는 선물인지, 내게 있어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자취지만 어쩐지 봄을 맞을 때마다 애뜻한 괴롭음이 가슴의 문을 소리 없이 두드려서 건딜 수 없습니다.

생활이란 것처럼 사람을 북으며, 세월이란 것처럼 사람을 틀어 놓는지는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도 아니건만, 어렸을 때에 기쁘던 봄이 어른 된 오늘에 이처럼 괴로울 줄은 나뉘지 아니라 누구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악(北岳) 머리를 싸고 흐르는 얽은 아지랑이나 마당 한 귀퉁이에서 뽕뽕뽕 터 오르는 새싹은 모두 새봄의 새 빛과 새 힘을 보여주는 것이로되 내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나 괴롭아닌 것이 없고 슬픔 아닌 것이 없고 추억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남은 다시 피어나는 희열에 방긱거리는데 나는 그것을 괴롭으로 보고, 슬픔으로 보고, 추억으로 보니, 나는 벌써 새싹과 같은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차라리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괴롭, 그 슬픔, 그 추억도 없이 지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삼십을 내일에 바라보는 청춘이외다. 가슴에 푸른 마음이 넘쳐흐르고 혈관에 붉은 피가 소용돌이를 치는 젊은이외다. 나는 이렇게 젊었으므로 이 봄이 괴롭고 이 봄이 슬프고, 그 괴롭 그 슬픔을 모르던 옛날의 봄이 그리웁니다. 철모르던 옛날의 봄이야말로 침말 봄이었습시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집안이 어찌 되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연히 모르고, 따스한 별발이 기어드는 봉당에서 하품하는 개를 말이라고 못 건디게 타고 놀다가 어머니의 꾸지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책보는 버드나무 가지에 처매어 놓고 새잡이 그물을 들고 이 들로 저 들로 돌아다니던 그 옛날의 철모르던 봄이 참으로 그리웁습니다.



사진 · 박해준

그렇던 봄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생각하면 옛날의 일이 외다. 얇은 비단 장막 같은 아지랑이에 아련히 가린 북악의 윤곽보다도 더 희미하게도 눈앞에 떠오르는 옛날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내 일생에 있어서 다시 찾을 수 없는 때입니다. 찾을 수 없는 그때를 이렇게 추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추억은 이해(理解)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목전에 닥치는 괴롭고 슬픔이 내 몸을 누르는 때마다 그 괴롭고 슬픔을 모르고, 양지쪽에 피어오르는 고사리 싹 같은 어릴 적으로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다리를 더듬어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추억의 사다리를 더듬는 때마다 봄밤, 우수(憂愁)달빛이 흐르는 봄밤, 푸른 안개 속에 싸인 듯이 푸근한 유쾌와 애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것처럼 추억되고 그 추억을 추억하는 것을 향락하는 것만큼 나의 이 봄 생활은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봄을 봄으로서 느끼지 못하리만큼 나의 생활은 거칠었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생각하는 때마다 눈 날리고 바람 치는 거친 들을 외로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강에 층층이 풀리고 북한(北漢)의 흰 눈이 녹아 세상은 이제 바야흐로 봄 세례를 받게 되건만 내 길의 빙설은 나날이 더해 갈 뿐이외다. 나는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슬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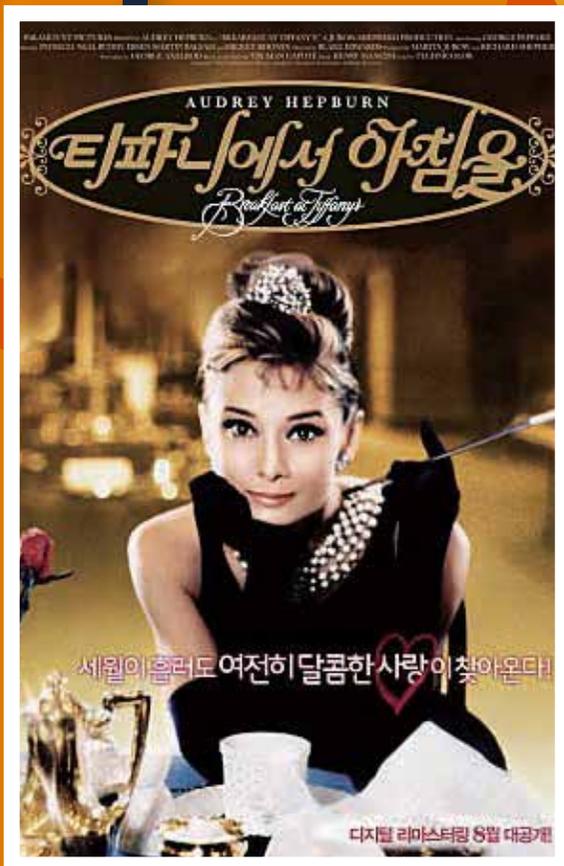
나는 이 괴롭을 누구더러 덜어 달라는 것도 아니요, 이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는 것도 아니외다. 이 괴롭, 이 슬픔은 나 아니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이 괴롭을 괴롭으로서 맛보고, 이 슬픔을 슬픔으로서 맛보려 할 뿐이외다. 나는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며, 그저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밟으려고 할 따름이외다. 나는 거기서 내 생명의 약동을 보고 내 생명의 법열(法悅)을 얻으려고 합니다.

봄, 괴로운 봄, 슬픈 봄, 추억의 이 봄은 나에게 얼마만의 괴롭고 슬픔과 추억을 주려하며 그 모든 것은 내 생명의 약동을 얼마나 더 늘려, 내 생명의 법열을 얼마나 더 돋우려는가.

강혜미 기자의 고전 영화 TOP4

로맨스 영화가 담고 있는 반전 티파니에서 아침을

글 · 강혜미



우아하게 올린 머리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 화려한 진주 목걸이에 선글라스까지. 한눈에 봐도 상류층인 듯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 그녀가 뉴욕 최고의 보석상인 티파니의 쇼윈도 앞에서 크루아상과 커피를 먹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한다.

반전이 있다면 그녀는 매우 기품 있고, 우아해 보이지만 실은 상류사회를 동경하는 하층민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불우하게 자란데다 나이 많은 남자와의 결혼 경험도 있는 할리는 돈을 벌기 위해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린다. 돈 많은 부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그런 그녀의 집 위층에 잭이 이사를 온다.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직업은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작가인 그는 고작 단편소설을 냈을 뿐이며, 상류층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궁핍함을 해결한다.

비슷한 처지의 아래층 여자와 위층 남자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친분을 쌓는다. 누가 봐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뿐 선부르게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첫 데이트를 즐긴다.

이후 잭은 상류층 여성과의 관계를 끝냄으로써 할리를 향한 마음을 굳히지만 할리는 다르다. 부유한 호세와의 결혼을 추진하며 상류층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그런데 호세와의 결혼을 위해 남미로의 출국을 앞두고 있던 때 일이 터지고 만다. 돈을 벌기 위해 교소도 면회 심부름을 했던 일이 문제가 되어 할리는 기소되고, 결국 호세와의 결혼은 파투가 난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에게 다시 고백하는 잭, 그러나 상류층을 향한 그녀의 동경은 그를 밀어내버린다. 잭은 따끔한 충고를 던지고 돌아서게 되고, 진심을 깨달은 할리가 그에게 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1960년대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씁쓸한 사실이다. 최근 세계적인 영화제를 휩쓴 영화 <기생충>도 비슷한 씁쓸함을 남겼더랬다. 그저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 나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선. 그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오드리 햅번의 사랑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선남선녀의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만약 할리가 호세와의 결혼에 성공했다면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 원하던 상류층의 자리에 오르긴 했어도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영화 막바지에 잭이 던진 대사에 들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속하며 살아가. 그게 유일한 행복의 기회니까.”

사랑을 포기한 삶은 행복할 리가 없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무척 단순한 감상이다. 오드리 햅번은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생각. 첫 장면부터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려 6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아름다움은 왜 다들 오드리 햅번에 열광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밀조밀하게 예쁜 생김새와 지금 입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듯한 옷차림. 이 아름다운 여성은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 예뻐던 사람인 모양이다. 배우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전향한 그녀는 암 투병 중에도 오지를 찾아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화면 밖 나이가 들어버린 모습마저도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삶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할리처럼 얻지 못할 것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 건은 아닌지, 영화 밖 오드리 햅번처럼 삶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말이다. 바라건대 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서촌의 예술가들, 그 흔적을 따라 서촌을 걷다

삶을 돌아보는 사색의 공간

글/사진 · 전영의

경복궁의 서쪽 마을 서촌. 조선시대 역관, 의관, 율관 등의 중인 계급이 살았던 서촌. 사대부들의 거주지, 북촌의 한옥이 귀품과 화려함을 품었다면 서촌의 한옥은 규모가 작고 질박하다.

유명 갤러리와 카페가 즐비한 북촌은 여행지로 유명세를 탄 지 오래다. 서촌은 한참 늦었다. 하지만 이젠 서촌이다. 서촌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서촌에 살았던 예술가들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서촌 도보 여행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사색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젠, 서촌!

신청했던 서촌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취소돼 홀로 서촌을 찾았다.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광화문에서 서촌한옥마을로 건너가는 길목에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중인 한복 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문드문하다. 서촌한옥마을과 통인시장도 제법 한산하다.

부득이하게 거리로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에 얼굴을 꼭 파묻은 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경계했다. 길을 모른다고 길을 물어볼 수는 없었다. 서울한옥포털에서 출력한 서촌 도보 코스 안내지만을 의지하여 서촌을 여행했다. 그러다 보니 꼭 봐야 할 곳을 못 찾아 빠트리기도 하고, 엉뚱한 곳을 몇 번이고 맴돌기도 했다. 못 본 곳은 여백이 되었다. 서촌의 여백. 그 여백 때문에 서촌을 또 찾지 않을 수 없다.

경복궁의 서쪽 마을을 일컫는 서촌은 보통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청운동, 신교동, 체부동 일대를 말하는데 세종대왕이 통인동에서 태어나 서촌을 세종마을로 부르기도 한다.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 이상, 윤동주, 노천명, 이중섭, 박노수, 이상범 같은 문인, 화가들이 삶을



1. 재미가 맞닿을 듯 오밀조밀 붙어 있는 서촌한옥 마을. 서로의 숨결에 기대어 살았던 중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골목골목 펼쳐져 있다
2. '이상의 집' 내부. 많지는 않지만 이상을 추억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차도 한 잔 할 수 있다
3. 서촌과 70여 년을 함께 한 통인시장. 업전을 구입하여 원하는 음식을 도시락에 담은 업전 도시락이 유명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시락에 다양한 음식을 담고 있다
4.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69년 전통의 한책방 대오 서점.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 외관은 한책방이지만 내부는 카페다. 이따금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5. 조선 시대 중인들이 살았던 한옥을 재현해 놓은 상촌재의 별관에서는 '한글 손글씨 체험'을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일군 곳. 그래서 문화 예술의 꽃이 웅성하게 피었던 곳! 그 향기를 찾아 서촌의 시간과 공간속을 걷는다. 혼자 걸고 쉬어가기에 이만한 곳이 있을까 싶다.

서촌을 빛나게 하는 서촌의 예술가들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을 지나자 곧 통의동의 명소 '보안여관'이 나왔다. 보안여관은 단순한 여관이 아니다. 시인 서정주의 오랜 하숙집이었고, 소설가 김동리의 단골 거처였고, 지방에서 상경한 문인들이 짐을 풀고 글을 쓰던 문학의 산실이었다. 1934년부터 2004년까지 여관 영업을 한 보안여관은 지금은 전시회와 음악회를 여는 문화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검재 정선이 노닐고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통의동. 이상의 시 '오감도'에 등장하는 '막다른 골목' 또한 통의동의 한 골목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안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재 시인 이상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상의 집'이 있다. 큰아버지에게 입양된 이상이 세 살부터 스물세 살까지 살았던 이상의 집에는 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도서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상의 집에서 5분 거리,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 있다. '대오서점'이다. 주인 부부의 이름 '조대식', '권오남'에서 한 글자씩 딴 대오서점. 69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부부의 책방에서 이제 부부는 만날 수 없다. 상호도 온전하지 않다. '서점'이란 글자는 세월에 뜯겨져 나가고 간신히 붙어 있는 두 글자 '대오'도 금방이라도 떨어져나갈 듯 펄럭인다.

대오서점에서는 더 이상 책을 팔지 않는다. 헌책방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는 카페로 변신했다. 하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몇 개의 테이블을 들여놓은 것을 빼면 여전히 헌책방이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 교과서, 잡지, 시집, 소설책, 전집 등이 사방에서 추억을 소환한다. 붙잡고 싶고, 기대고 싶은 시간들을 가득 품고 있는 공간이다. 가수 아이유가 앨범 재킷 촬영을 해 젊은 세대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 대오서점은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서촌의 핫플레이스이다.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처럼

수성! 물 수, 소리 성. 물소리가 아름다운 수성동 계곡.

이곳에 안평대군의 별장 '비해당'이 있었다. 인왕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수성동 계곡을 관통하여 청계천으로 뻗어나갔다. 때문에 수성동 계곡은 사시사철 맑고 시원한 물소리를 냈다. 그런 연유였을까? 비해당에는 당대 이름 있는 문인과 집현전 학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안평대군은 그들과 더불어 수성동 계곡을 유희했다. 청량한 물소리에 취해 술잔을 기울이고, 계곡물에 비친 달빛에 젖어 가야금을 켜곤 했다고 한다. 검재 정선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인왕제색도'에 담았을 만큼 수성동 계곡은 많은 예술가에게 비경으로 꼽혔다.

수성동 계곡에서 조금 내려오면 시인 윤동주가 하숙했던 집터와 박노수미술관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상범 가옥과 노천명 집터는 끝내 찾지 못했다.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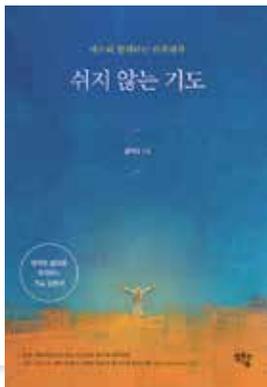
짧은 시간에 서촌의 예술가들을 만났다. 주옥같은 시와 그림과 예술가들의 심미안적 삶이 말을 걸어오는 매력적인 서촌. 속을 들여다볼수록 아름답고 그윽하다.

나는 언제쯤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처럼 맑고 푸른 소리를 낼 수 있을까.



BOOK AND BOOK

정리 · 강혜미



쉬지 않는 기도

저자 : 김석년 | 320쪽 | 16,0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패스브레이킹 기도 연구소 소장인 김석년 목사. 저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어 있는 쉬지 않는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 기도의 첫 단추를 꿴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기도 실천서이다. 기도의 근간인 정시기도,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아침의 기도, 십계명으로 드리는 정오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밤의 기도로 구성되어 기도의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예수의 기도

저자 : 마크 존스 | 옮김 : 오현미 | 264쪽 | 15,000원 | 출판사 : 조이박스

성경 곳곳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신약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 그중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이다. 이 책은 성경 속 예수의 기도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고 기도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 기록물을 이야기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 알고 그분을 닮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들풀 위에 깃든 소망

저자 : 홍동완 | 204쪽 | 11,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지금의 시대는 세상과 교회, 자연과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저자는 영성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에 평범한 삶 속에서 영성을 찾아야 한다. 도심리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는 영성적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늘과 땅, 물, 벗으로 묶여 구성된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거룩한빛 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 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 일	1 부 예배	오전 7:30	광 성 홀	교 회 교 학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B1)
	2 부 예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영아부 1부 없음) 2부 오전 10:30	장 미(B1)
	3 부 예배	오전 10:30	광 성 홀		유 치 부	3부 낮 12:00	진 달 래(B1)
	4 부 예배	낮 12:00	광 성 홀		초 등 1 부		무 궁 화(B2)
	5 부 예배 (정년부)	오후 2:0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B2)
농인부예배	오후 12:40	비전센터2동(2F)	초 등 3 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찬양예배	3월 한달 간 드리지 않습니다		초 등 4 부		2부 오전 10:30	드림교육 3-2동	
수 요 예 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성경대학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요기도회, 성경대학은 3월 한달 간 모이지 않습니다.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빛가득금요기도회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2F)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어린이영어2부		오전 10:30		
저녁기도회(월~토)	3월 한달 간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어린이	오전 10:30	민 들 래(B1)		
베 트 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랑청소년	오전 10:30	비 전 홀(B1)		
외국인	오전 3:00	비전센터 3동	사랑청년1부	오전 9:00	비 전 홀(B1)		
영 어 예 배	낮 12:10	드림교육 1동	사랑청년2부	오전 9:00	비전센터 3동		
주 일 영 상 예 배	2/3부 [4층그라운드홀]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3/4부 [지저스아트홀]		고 등 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광성재수부	오전 9:00	다목적실(드림학교)		

교육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한달 간 교육훈련은 연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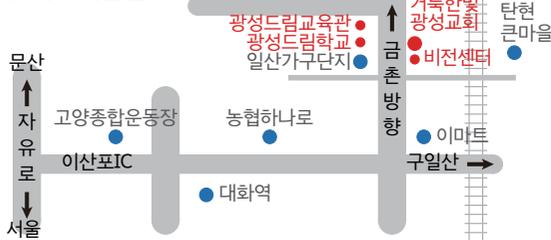
새 가 족 교 육	주 일 오전 11:45	비 전 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1:15			주 일 오후 2:00	
알 파 코 스	화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성 경 대 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30	
일대일 제자양육	매 일	해당교육실	목 자 제 자 훈 련	주 일 오후 2:00	해당교육실
노 아 스 쿨	목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목 자 제 자 훈 련	수요일 오전 9:40	

봉사기관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한달 간 평생교육원은 및 기타 봉사는 휴무입니다.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11-1324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 사 가 계	911-2923	파 주 노 인 복 지 관	943-0730
복 카 페	929-3311	쿰 치 유 센 터	929-334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934-2000
지 혜 모 아	929-3354	두 드 림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 나 와 메 추 라 기	929-3340	한 나 래 유 치 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 담 실	929-3333	광 성 드 림 학 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 름 머 리 방	929-3344	해 피 뱅 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울 리 브 향 기	929-3388	해 피 천 사	918-7004	광성심리상담센터	929-3370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 자가용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 대중교통 (대회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 1388
아동·청소년·성인·부부 전문심리상담 광성심리상담센터 : 929-3370 (예약필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사역총괄

1교구 (중보기도)	차광욱목사
2교구 (통일선교)	주용진목사
3교구 (제2교육)	최종운목사
4교구 (세계선교)	김만석목사
5교구 (국제군경스포츠)	김은찬목사
6교구 (사회선교, 봉사)	박석순목사
7교구 (제1교육)	이석희목사
8교구 (예배)	우동진목사
9교구 (선임기획행정)	문상원목사
10교구 (전도)	나형빈목사
안 식 년	김선호목사
유 학	이용복목사
	송화준목사
	최영민목사

● 행정

행정사역	김 환전도사
목회비서	김원준전도사
미 디 어	최성직전도사
음 영	김신영간사
재 정 간 사	최민석간사
행 정 간 사	한수영간사
관 리 사 무	정성수장로

● 교 육

제 1 교 육 (교회학교)	이석희목사
영 아 부	김솔지전도사
유 아 부	김수진전도사
유 치 부	김수경목사
초 등 1 부	홍요한전도사
초 등 2 부	김시란전도사
초 등 3 부	최성직전도사
초 등 4 부	김원준전도사
초 등 5 부	이재광전도사
초 등 6 부	유현애전도사
중 등	김은하목사
	오성운목사
	최호영전도사
	김 환전도사
	신연섭전도사
	김정준목사
	정상우전도사
	김민석전도사
	박정훈전도사
	백일주전도사
	정시문목사
	박정훈전도사
	박정우전도사
	최낙천전도사
	정시문목사
	최종운목사
	심해욱목사
	김수경목사
	최형만전도사

장 애 인 총 괄
사 랑 어 린 이
사 랑 청 소 년
사 랑 청 년 1 부
사 랑 청 년 2 부
제 2 교 육
새 가 족
가 정, 신혼부부
노 아 스 쿨

● 선교 및 예배

세 계 선 교	김만석목사
사 회 선 교	박석순목사
국 내 군 경	김은찬목사
공 평 성 어	윤성로목사
태 국	황경희선교사
베 트 남	노영민전도사
통 일 선 교	노옥실전도사
부 담 도	정시문목사
인	이소영목사
	나형빈목사
	김숙희전도사
	박성택목사
제 1 찬 양	김원준전도사
제 2 찬 양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0 SPRING
VOL.40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0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0년 4월 12일

인쇄: 부건프로세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유동규

사진: 박해준, 최성직

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팀장: 전영의

초대합니다.



실업인 선교회원을 초대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 중 개인·법인사업 대표 및
전문직, 1인기업 대표, 스타트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며
사업의 동역자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입문의: 회장 강건용(010.7677.4377)

| 모 임 | 매월 3주차 월요일 오후 7시-9시(석식제공)

| 주 제 | 독서남 강연, 경영특강, 인문학 강의 등

| 임원단 | 강건용(회장) / 이상태(총무) / 박장원(홍보) / 정선자(재무) / 박미연(사기) / 김성룡(홍보) / 이병호(찬양) / 모영철(강사)

| 교무단 | 장로 / 전임 임원단



STANFORD HOTEL
SEOUL

스탠포드 호텔이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께 드리는 웨딩 특별 혜택

- 식대 5~10% 할인(5만원대 부터)
- 음료, 주류 20~30% 할인
- 잔치국수 서비스(70만원 상당)
- 양가 상견례 6인 식사 무료 제공
- 허니문 스위트룸 객실 1박
- 2부 연출료(Cake & Champagne 연출), 부대비용 서비스(150만원 상당)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위치 / 일산에서 15분 거리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 의료진 협진시스템
- ⊕ 건강검진센터 운영



든든한병원

진료내용

척추 **관절** **내과** **검진** **치과**

[병원장 / 김진만 장로]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1577-9177**

일산서구 덕이지구(덕이동 1551)

 www.15779177.co.kr

고양시민을 위한 일산농협만의 특별한 혜택!

2020년 대출 단기특판

최저 금리 연 **3.3%** 부터
(6개월 변동금리)



특판 금리

- 최저금리 **3.3%** 부터
(신용등급 및 우대조건에 따른 차등 적용)

특판 대상 (부동산 담보 대출)

-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농지 등 부동산
- 타행 대환대출, 신규 대출, 잔금 대출

특판 기한

- 2020년 4월말 까지 또는
특판 한도 소진 시 까지

특판 금액

- 감정평가금액의 **최대 한도 80%** 까지
(신용등급 및 채무자 자격에 따른 차등 적용)

특판 혜택

- 이용고배당 또는 사업준비금배당을 통한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가능

배당효과를 통한 실질금리 예시표

표면금리	구 분	배당 효과	실질 금리
3.30%	조 합 원	0.57%	2.73%
	준조합원	0.18%	3.12%
3.50%	조 합 원	0.61%	2.89%
	준조합원	0.19%	3.31%
3.90%	조 합 원	0.68%	3.22%
	준조합원	0.22%	3.68%

※ 상기 실질 금리 및 배당 효과 예시표는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산출 되었으며, 매 회계연도별 결산과 배당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행 대환 시 우대금리 적용

대출 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 전액 농협 부담 (단, 국민주택 채권할인료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음)
- 감정평가수수료 전액 농협 부담
- 수입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농협 50% 채무자 50%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들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영농자재센터 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904-0253 ■ 로컬푸드직매장 풍산점 906-3666
 ■ 로컬푸드직매장 일산점 975-8322 ■ 로컬푸드직매장 장항점 907-8161 ■ 쌀 판매장 1599-80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975-8701